

/ 개관 30주년 맞는 국립광주박물관 /



6일로 개관 30주년을 맞는 국립광주박물관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은 조현중 관장(맨 오른쪽)이 관람객들에게 용관묘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 활발한 전시·다양한 프로그램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지난 1978년 전국 최초의 지방 국립박물관으로 문을 연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이하 광주박물관)이 6일로 개관 30주년을 맞는다. 개관 당시 1천여점이었던 전시물은 활발한 발굴과 기증으로 5만여점으로 늘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전남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전시관 외에 교육관과 연구동, 어린이박물관이 신축돼 지역

들에게 설명회를 열었다. 전남도 기념물 제121호인 이 고분에서는 옥구슬과 흙으로 빚은 그릇받침대, 철촉, 옹관조각 등이 발견됐다. 또 광주박물관은 지난 1992년에는 기원전 1~2세 초기 철기시대의 택지와 농경지인 광주신창동 유적을 발굴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밖에도 화순대곡리 유적, 나주 수문패총, 해남 만의총, 해남 용두리 등지에서 발굴 조사를 펼쳐 3천

해에 비해 182% 늘어났다. 학생도 11만4천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62%로 증가했다. 이처럼 관람객들이 늘고 있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덕이다. 광주박물관은 주말과 방학에 맞춰 30여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남중화의 거장 소치 허런 200년'전(2008년) 등 해마다 10여 개의 전시를 기획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감각적인 영상을 소비하는 디지털 세대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멀티미디어 시설이 강화된 리노베이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크게 ▲멀티미디어 시설 ▲유물 설명과 교육 기능 강화 ▲체험 공간 마련 ▲시각 미디어 시설 확충 ▲전시를 위한 최적화된 공간확보 등으로 이뤄진다.

관람객 연 24만...해마다 2만 명씩 늘어

2010년까지 80억 들여 전시관 새 단장

문화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80억원의 예산을 들인 전시관 리노베이션 사업이 2010년 완료되면, 첨단 전시 시설을 갖춘 명실상부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발한 발굴 활동, 유물 5만여 점 보관=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물을 발굴하고, 온전히 보존하며, 이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것이다. 광주박물관은 지난 해 남해군 삼산면 용두리고분(6세기 중반 추정) 발굴현장에서 발견된 석실에 대해 학계와 지역민

200여점의 유물을 출토했다. ▲열린 박물관 표방, 관람객 북적=광주박물관은 우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군인들의 문화재 체험 행사인 '밀리터리 뮤지엄' 등의 성공으로 평소 박물관을 자주 찾지 않았던 학생, 외국인 등 문화소의 계층의 방문이 부쩍 늘었다. 해마다 24만여명의 관람객들이 광주박물관을 찾고 있으며, 매년 2만여명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 외국인 관람객은 11월 26일 현재 2천123명으로 지난

조현중 관장은 "2010년에는 관람객이 영상을 통해 유물을 만드는 과정과 출토 지역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대식 전시시설을 갖추게 된다"면서 "호남지역의 유물 보관·전시에서 벗어나 아시아 여러 나라의 유물을 소개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장기 발전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여백의 美

박태후 문인화 개인전  
9~20일 나주문예회관

여백의 미가 인상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문인화가 박태후씨가 9~20일까지 나주문예회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박씨는 화면을 가로지르는 전깃줄 위에 참새가 줄지어 앉아있는 '참새' 연작으로 정갈한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고 있는 작가이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화가와 정원'을 주제로 참새 연작을 비롯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주시 급천면 죽실현의 겨울 풍경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또 절정에 달한 백일홍의 붉은 꽃잎을 앙상한 가지와 대비시켜 깊은 사유의 세계를 만들어 낸 '자연 속으로' 연작도 함께 출품했다. 박씨의 기운 찬 번짐과 자연스러운 스킴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작품들이다. 참새, 병아리, 산, 물, 폭포 등을 화면 가득 담아낸 뒤 넓은 여백을 뒤안 정감이 들고, 과감하게 파란색을 사용해 화선지의 하얀색, 먹의 검은 빛과 조화를 이뤘다. 또 대소변을 보는

알몸의 인간을 표현한 의상스러움도 눈에 띈다. 박씨는 조선대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전남도 미술대전 특선 등 상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서예대전, 광주시전,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지냈다. 061-330-8529. /오광록기자 kroh@

### 윤소희 첼로 독주회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윤소희(사진) 첼로 독주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슈만 특유의 감성이 흐르는 곡으로 '밤의 음악'이라는 표제가 붙은 '환상곡 작품 73', 조르주 샹드와 사람으로 고민하던 당시 쇼팽의 감정이 살아있는 무거운 분위기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등이다. 눈에 띄는 곡은 클래식 기타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칼의 '첼로와 기타를 위한 세레나타'다. 모두 7개 악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흥겹고 밝은 선율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파리 콘서바토리 인터내셔널 디플로마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수영(조선대 등 출강)씨와 스페인 마드리드, 그라나다 왕립음악원을 졸업한 기타리스트 서만재(한국교원대 교수)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전남대 음악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윤씨는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바이마르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광주교육대에 출강중이다. 또 CBS 메타필로스 첼리스트, 스페인 아케스트라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의 010-7471-117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작가 박경화 첫 소설집 '태업을 감는 여자'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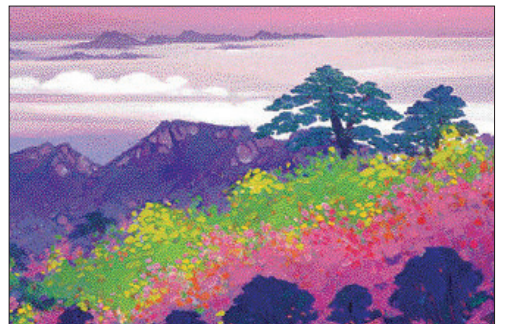
소설가 박경화가 지난 8년 만에 첫 소설집 '태업을 감는 여자'를 펴냈다. 이번 소설집에는 표제작 '태업을 감는 여자'를 비롯해 작품성이 인정받은 8편의 작품을 묶었다. 남남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묘사가 돋보이는 '가을 물정'과 '스무개의 담배', 퍼포먼스 아트를 소재로 한 '딤섬' 등 삶과 예술의 본질을 이야기한 작품들이 수록됐다. 소설가 송은일씨는 "박경화의 소설은 현재의 우리가 놓쳤던 혹은 내버려둔 우리 삶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느껴질 만큼 세밀하게 묘사했다"면서 "아프지만 한 편으로는 새삼이 돌아날 수 있다는 회상을 이야기한 소설"이라고 평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광주엔시안 요델클럽 정기 연주회

6일 광주문예회관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엔시안 요델클럽(회장 박명선·사진) 정기 연주회가 6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요델은 중세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알프스 지방 노래로 독특한 발성과 기교가 인상적인 장르다. 특히 자연에 대한 감이로움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 다른 음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관영·장미정·이순화·김미화·류정미·김현범·김진 등이 '귀여운 요델 소년', '아르미의 풍경', '빠꾸기 요델', '즐거운 목동', '고향의 꿈'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카우벨, 반들린, 우드스폰 등 좀처럼 보기 어려운 다양한 악기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 또 아마데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고운소리 카운셀러단이 함께 무대에 선다. 지난 1997년 창단후 정기공연과 무등산풍경소리 등 다양한 무대에서 온 엔시안 요델클럽은 특히 이번 공연에 다문화 가정 100여명을 초청, 노래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www.jodel.kr. 문의 010-6485-44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사생회 '남도현장'展

10일까지 광주 금남로 메트로갤러리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생가남치는 자연 풍광을 화폭에 담아오고 있는 광주사생회(회장 정흥기)가 10일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메트로갤러리에서 '남도현장'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조규일, 이우진, 김주성, 김재균, 김종욱, 이미란, 김진희, 김광표, 강연희, 김강수희 등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자연의 빛깔이 듬뿍 담긴 풍경화를 선보인다. 지난 1984년 창립된 광주사생회는



정흥기 작 '지리산 서정'  
매달 한차례씩 전곡을 돌며 그림을 그려오고 있는 미술 단체이며, 23차례 회원전을 열었다. 문의 062-226-8056. /오광록기자 kroh@

novita

신뢰할 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전문기업!

노비타는 10년 이상의 경험과 관록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데프라자 | 062-515-1144

보양음료 속취애소

김희가농보양음료연구소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여 드십니까?  
우르니1065는 남은보소,모두와,보양음료입니다.

1층(문로길365) 2층(문로길) 062-207-7753  
당일 당 구입문의 011-9612-8706